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41차	일자	2021.10.04 18:30	장소	온라인
----	-----	----	------------------	----	-----

0 성원점검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	○	○	○	X	○	X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	개회 후 출석	○	개회 후 출석	○	○	11/13

<개회>

1 단위별 보고

간호대학	특이사항 없음
경영경제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범대학	수요일 단학대회 진행
사회과학대학	학술제 진행 완료
약학대학	불참
예술대학	특이사항 없음
의과대학	불참
인문대학	특이사항 없음
자연과학대학	특이사항 없음
통일공대	특이사항 없음
동아리연합회	보고 없음

2 보고안건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산하위원회
2학기 개강인사 이벤트 상품 발송 완료	문화위 가을 축제 진행 완료
확대운영위원회 진행 및 자료집 관련 준비 중	성평위 플레인플렌티 제휴 사업 진행 중. 학생 대표자 대상 성평등 교육 관련 준비 중
교육자치, 전략정책 비교과 프로그램 공모전(스터디 중앙대 파이터) 진행 중	인복위 21-2학기 의혈지킴이 규찰대 진행 중. 중앙도서관 사물함 관련 회계 내역 공개 게시판 신설 및 회계 내역 업로드 완료
연대사업 노동자 휴게 공간 전수 조사 진행 중	장인위 학생 대표자 대상 장애인권 교육 관련 준비 중
일상복지 교내 셔틀버스 운영개선 관련 총무처 논의 진행 완료	졸준위 졸업앨범 촬영 진행 완료, 리더디자인 학위복 관련 설문조사 진행 예정, 졸업기념품 선정 완료
홍보소통 푸짐한 힐링캠프 신청자 종합 중	

3 논의안건

1. 2학기 회칙 및 세칙 개정 논의

- 총학생회 회칙 및 세칙 개정
 - 각 제안별 최종 검토
- 기타 논의

총: 지난주 월요일에 진행된 중운위에서 이관된 내용들이다.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특별자치기구, 두 번째로 피선거권 자격의 4차 학기 이상을 삭제하자, 세 번째로 학생총회와 학생총투표간의 관계 그리고 지위에 대한 내용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특별 회계 관련 내용이다. 특별자치기구 및 특별회계는 한꺼번에 묶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총학생회장단과 성평위, 장인위간의 논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우선 총학생회장단은 성평등위원회와 장애인권위원회의 현행 유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상호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현행 유지 입장을 밝힌 근거는 다음과 같다. 예산 및 사업 집행 그리고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면 총학생회의 집행부와 다른 별개의 조직이 되는 것인데 임명제로 선출된 위원장이 직선제로 당선되고 구성된 총학생의 집행부와 이러한 상관관계와 권한을 가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기타 다른 이유를 바탕으로 현행 유지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특별자치기구와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 사과대에서 개정을 제안해주셨기 때문에 사과대 먼저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지?

사과.부: 사실 저희는 이전과 같은 논의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성평위와 장인위가 특기구로 따로 독립적으로 유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앞선 논의와 같이 의견은 똑같고 다른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총학생회에서 각 근거로 말씀하신 이후에 성평위와 장인위에 대해서 이에 대해 따로 의견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총: 우선 현행 유지 입장을 밝힌다고 해서 상호 간의 합의는 불발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개정 여부에 대한 중운위분들 의견도 괜찮고 다른 내용의 의견도 괜찮다. 사실 총학생회장단과 양 위원회 간의 논의가 무산, 무산이 아니라 이제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자치기구의 개정안에 상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다. 왜냐하면 특별자치기구의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회칙이 정립이 되어야 하고 적립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의결에 붙여야 한다. 근데 상호간의 논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개정안으로 상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있고 하여튼 이렇다. 총학생회장단의 의견은 이렇고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

사과.부: 사과대 추가적으로 질의가 하나 더 있는데 그러면 특별자치기구에 대한 상호간의 협의가 결렬되었으면 혹시 관련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논의는 더 하지 않으신 건지?

총: 특별회계라는 것이 특별자치기구와 위원회가 분리되었을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 특별자치기구로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자치기구에 대한 개정안이 상정이 되지 않으면 특별회계 또한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사과.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기구로 분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 위원회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회계 정도는 독립성을 가지고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특별회계 조항 정도는 새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다.

총: 특별회계라는 조항을 넣기 위해서는 각 위원회에 배분되는 학생회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선제되어야 한다. 총학생회장단 의견은 우선 현재 이제 각 위원회로 배분 방식은 국,위원장 회의를 통해서 예산안을 확정하고 배분을 하고 있다. 예산안이 확정 된다면 그 내역에 한해서는 충분히 보장을 하고 있고 특별회계를 굳이 편성하지 않더라도 국,위원장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고 논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한다.

사과.부: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회계의 독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오늘 보내주신 자료에 2학기 예산안 참고 자료도 확인을 해보니 위원회의 지원비가 총 3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있다. 근데 사실

5개 위원회가 있고 300만원밖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사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위원회에서 사업이나 행사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회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특별회계와 같은 조항을 만들어 위원회가 각 위원회가 어느 정도 물론 현재 회칙상 총학생회장의 산하에 있긴 하지만 각 위원회가 가지는 특성과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회계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으면 해서 드리는 이야기였다.

총: 현재 줄준위는 따로 또 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사용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축제 또한 축제 비용은 제외한 비용이기 때문에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위원회든 위원회든 간에 어쨌든 국,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다 합의가 된 내용이다. 그 지원비의 수준을 떠나가지고 각 위원장들께서 다 이제 의견을 모아주셨고 합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의 지원비가 책정이 되었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드리겠다. 그리고 2학기 예산안이 2학기의 개월수가 적기 때문에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라는 내용도 함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다.

인문.정: 일단은 인문대학 의견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특별자치기구에 대한 인문대학의 최종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특별자치기구에서 인문대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기구의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평위와 장인위는 특별자치기구로 분리 독립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위원장 선출이나 회계 같은 경우는 위원장의 경우에는 성평위에서 제청을 해주고 중운위에서 저희가 집행부를 인준하듯이 성평위에서 제청을 해주면 중운위에서 나름의 인준 절차를 거쳐서 임명하면 되는 방안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회계의 경우도 당일 총학생회 학생회비의 일부분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특별자치기구에 배당을 한 후에 이를 전학대회에서 감사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인문대학은 성평등위원회와 장애인권위원회가 특별자치기구로서 분리 독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러한 논의는 이미 지난번에 있었던 학생총회 이후부터 총학생회와 산하기구간에 합의 지점이 뭔가 논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총: 산하위원회인 성평등위원회와 장애인권위원회 그리고 총학생회장단간의 논의는 성사되지 못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특별자치기구와 특별회계를 개정안에 상정을 하는게 맞다 아니냐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이 되리라 생각이 된다.

통공.정: 공대 의견 들려도 되는지?

총: 네

통공.정: 공대는 단운위 논의 결과 우선 상정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고 주된 이유를 한 줄로 말씀드리자면 아직 제대로 정립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단위의 장이 직선제로 선출된 사람이 아닌데 왜 그들의 독립성을 인정해줘야 하는지 모르겠고 자꾸 그들의 업무의 독립성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객관적인 정답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고 대표자 선출 방법이라든지 회칙이라든지 회계내역 처리 방법이라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전학대회, 학운위에 안건을 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냥.

경경.부: 경경대도 해당 의견에 동의하고 이유는 총학생회장님 의견과 같다.

총: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

사범.정: 사범대학도 해당 안건 상정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의견도 총학생회장님과 같다.

동연.부: 동아리연합회는 해당 안건 상정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자연.비: 자연대도 해당 안건 상정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총: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을 내주시면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예술.정: 예술대도 동의한다.

간호.정: 간호대도 동의한다.

총: 추가 의견 없으시면 개정안으로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다. 다음은 피선거 자격에 본회의 회원으로 4차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자는 내용인데 우선 총학생회장단 의견은 다음과 같다. 중앙대학교 재학생으로서의 4차 학기 이상 등록은 총학생회장단 선거 출마의 기본 조건이자 역량으로 인정해야 한다. 중선관위로서 선거를 원활히 진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역할을 고려했을 때에도 어느 정도의 조건은 필요하다는 것이 총학생회장단의 의견이다. 다른 대표자분들의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간호.정: 간호대 동의한다.

동연.부: 동아리연합회도 회장님 의견에 동의한다.

경경.부: 경경대도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도 동의한다.

자연.비: 자연대도 동의한다.

통공.정: 공대도 같은 생각이다.

예술.정: 예술대도 동의한다.

총: 추가의견 없으시면 다음 의견으로 넘어가겠다. 추가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학생총회와 학생총투표간의 지위 문제인데 이에 대한 중운위분들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다.

통공.정: 공대는 단운위 논의 결과 해당 조항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맞다고 의견 모아졌고 이유로는 총투표에 참가하는 학생 수와 학생총회에 참가하는 학생 수를 비교해 봤을 때 총투표가 더 큰 규모 그리고 전체 재학생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의결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자연.비: 자연대도 단운위 결과 현행 유지하는데 동의했으며 이유는 공대 회장님이 말씀해주신 이유와 같다.

예술.정: 예술대도 같다.

사과.정: 사회과학대학은 앞에 정해진 모든 의결 방식이나 단체보다 우선시 된다는 부분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고 그 사유는 총투표는 단순한 투표 회의로서 학우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학생총회의 경우에는 민주적인 토론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두 총투표와 학생총회의 우위를 회칙에서 규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네 현재 시점에서 규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총: 다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개정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인지?

사과.정: 규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삭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총: 다른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도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 이유로는 일단은 총투표 같은 경우는 의결 방식이고 학생총회 같은 경우는 의결기구인데 일단 의결 방식이 의결기구에 앞설 수 있나 라는 그래서 단운위 내에서 고민이 있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사회과학대학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적 토론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인문대학은 해당 내용이 삭제되는 것에 동의를 하는 입장이다.

경경.부: 경경대는 현행 유지에 대한 의견이고 다수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총투표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동연.부: 동아리연합회도 같은 이유로 현행 유지 의견이다.

총: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을 내주시기 바라고 현재까지 인문대, 사과대는 삭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다른 단과대 대표자분들은 현행을 유지하자 라는 의견을 내주셨다. 삭제에 대한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현행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의견 안내주신 대표자분들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

간호.정: 간호대 현행 유지에 동의한다.

총: 내용 삭제에 대한 추가 의견 없으시므로 의결을 따로 거치지 않고 개정안으로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금차 중운위 회의로 이관된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다 완료되었다. 기타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기타 의견을 내주시고 기타 의견이 없으면 확대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의 의결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사과.정: 혹시 사회과학대학에 개정 의견으로 드린 것 중에 피선거권 4차 학기 이상 조항에 대해서 편입생의 경우에는 이전 학교에서 수강했던 학기도 가름하여 적용한다 이런 조항을 제안 드렸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총학생회장단의 논의는 어떻게 되셨을지 궁금하다. 현실적으로 해당 조항을 편입생에게 또 적용을 하면 편입생은 필연적으로 추가 학기를 다니는 재학생이어야 해서 편입생에도 이제 저희 학생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이전 학교에서의 다닌 차수도 가름하여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나 라는 방향으로 개정 의견을 드렸었다.

총: 우선 현행 회칙 유지가 결정이 되었으므로 중앙대학교 재학생으로서의 4차 학기 이상 등록을 만약에 타 학교 등록 기간까지 가름하여 적용을 한다면 그 기준 적용에 차별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맥락에서 편입생 또한 중앙대학교 재학생으로서 4차 학기 이상을 무조건 다녀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사과.정: 네 말씀해주신 의견 이해했다.

총: 네 의결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4 의결안건

1. 확대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① 통과안건 상정

[2021-2학기 확대운영위원회 의사진행방식을 통과안건에 상정한다.]

② 의결안건 상정

가. [2021-2학기 총학생회비 및 예산안을 의결안건에 상정한다.]

나. [‘21년 05월 18일 개정안의 가지번호 방식 정렬을 위한 총학생회 회칙 일부개정안’을 의결안건에 상정한다.]

다. [‘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조항 신설을 위한 총학생회 회칙 일부개정안’을 의결안건에 상정한다.]

라. [‘21년 05월 18일 개정안에 따른 표기 수정을 위한 총학생회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의결안건에 상정한다.]

마. [‘총학생회 명칭 변경을 위한 총학생회 회칙 일부개정안’을 의결안건에 상정한다.]

바. [‘보궐선거 등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임기 명시를 위한 총학생회 회칙 일부개정안’을 의결안건에 상정한다.]

③ 논의안건 상정

[중앙감사위원회 지위 및 방향성 논의를 논의안건에 상정한다.]

④ 심의안건 상정

[총학생회비 결산 및 내역 심의를 심의안건에 상정한다.]

⑤ 보고안건 상정

가. [중앙집행위원회 업무 보고를 보고안건에 상정한다.]

나. [각 위원회별 업무 보고를 보고안건에 상정한다.]

총: 첫 번째 의결 안건이다. 통과 안건 상정에 대한 의견이 있고 지금 화면으로 공유해드리는데 통과 안

건의 가안이다. 이 통과 안건은 확운위 최초 의결을 통해서 확정을 지을 예정이다. 혹시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나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의견을 내주시고 의견이 없다면 통과 안건 상정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지난 전학대회 때 사용했던 통과안건이랑은 동일한데 추가된 게 하나 있다. 7번 기타에 1번 항목에 회의 참여자에 대해 회의 도중 음주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그 즉시 회의 참여를 제한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했고 해당 내용은 지난 2학기 확대운영위원회 때 추가된 것으로 이번에도 제가 한번 첨부해서 통과안건을 작성해 보았다.

간호.정: 참여 제한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총: 대기실로 이동을 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해서는 지난 작년 확운위 때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제가 이번에도 혹시나 싶어서 넣었는데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을지?

부총: 저는 조항 삭제보다도 회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한시적으로 참여를 제한할 것인지 혹은 영구적으로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규정을 하면 논의가 편해질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음주 행위를 적발하면 대기실로 이동 후에 음주 상황이 종료된 후 다시 복귀를 시킬 것인지 혹은 그 회의 참여 자체를 영구적으로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제한할 것인지 두 개에 대해서 논의를 한 후에 최종 결정을 했으면 한다.

총: 우선 제 생각은 몇 시간으로 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자 의견이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주가 시작이 됐으면 사실 음주 이제 숙취를 해소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걸 저희가 수치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음주를 하는 게 당연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

사범.정: 사범대도 음주 적발이 되면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동의한다.

경경.정: 경경대 또한 회의 진행시에는 음주가 당연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이후에는 이 안건에 대한 추가 의견 없다.

자연.비: 자연대도 영구제한에 동의한다.

예술.정: 예술대도 동의한다.

간호.정: 간호대 제한에 동의하는데 혹시 그 제한 사유가 또 밝혀지는지? 공개가 되는지?

총: 충분히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음주가 적발이 된다면 의장단이 또 다른 대표자분들께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 그 제한 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

동연.부: 동아리연합회도 제한과 해당 안건에 대해서 동의한다.

총: 추가 의견 없으시면 통과 안건 상정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채팅창에 의결명 확인을 해주시고 찬성하시는 대표자분들은 찬성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란다. 자연대 비대위원장님 저한테 dm으로 보내셨는데 전체 채팅으로 한번 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

자연.비: 네 다시 보냈다.

총: 네 11단위 참석해주셨고 11단위 찬성으로 통과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다.

인문.정: 총학생회장님 이와 별개로 질문이 있는데 혹시 그럼 총학생회비 배분은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총: 그거는 제가 이제 의결 안건 가 진행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우선 총학생회비가 3차까지 입금이 되었는데 4차, 5차가 좀 입금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래서 내일 중으로 학생회비 3차 납부 명단을 전달받아서 3차까지만 우선 배분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그리고 저희가 3차 납부 명단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 단과대학 배정액을 작성하지 못했다. 이 단과대학 배정액은 내일 중으로 학생회비 3차 납부명단을 받고 나서 저희가 숫자를 좀 바꿔서 내일 중으로 이 안건은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해가 되셨는지? 제가 단과대학 배정액을 아직 확인을 못해서 내일 중으로 확정을 짓고 내일 해당 안건은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인문.정: 네 감사하다.

총: 그러면. 우선 각 단위별 학생회비 배분 비율은 지난 1학기 때와 동일하게 진행해도 괜찮은지? 기본 배정액을 4400원으로 하고 역비율 환산액을 250원으로, 추가 배정액을 200원으로, 중앙단위 중 총학생회는 3520원으로, 동아리연합회는 880원으로, 그리고 전학대회 비용은 250원으로 비율을 책정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다. 우선 온라인으로 확대운영위원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지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전학대회비의 항목을 온라인 선거 비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다른 대표자분들의 의견을 구하겠다.

간호.정: 작년 온라인 선거에 비해 증액된 것인지?

총: 다시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증액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간호.정: 아니다.

총: 사실 온라인 선거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될지 제가 확신을 못한다. 우선 온라인 선거 비용으로 책정을 해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다. 전학대회비로 책정해도 되고 아니면 온라인 선거 비용으로 책정해도 된다. 다른 대표자분들의 의견 또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사과.정: 작년도 11월에 온라인 선거에서도 전학대회 비용을 가용했던 것은 기억이 나는데 혹시 학생 지원팀의 지원은 아예 받지 않는 것인지? 별도 지원이 없는 것인지?

총: 전자투표 업체 비용을 지원을 받고 나머지 비용은 학생회비로 지출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사과.정: 그렇다면 혹시 저 비용은 선거 공용 제도 등에 사용되는 비용인지?

총: 아니다. 원래 선거 자금 공용 제도는 학생회비로 충당을 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온라인 선거 비용이라는 저희가 중선관위로서 온라인 선거를 지원을 할 때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다. 추천인 명부를 추천인 명부의 시스템을 사용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들이 될 수가 있겠고 다른 기타 비용이 될 수가 있겠다.

사과.정: 네 이해했다.

총: 온라인 선거 비용으로 책정하자는 거에 대해 의견이 없으신지 다들?

간호.정: 간호대 없다.

사범.정: 사범대 없다.

예술.정: 예술대 없다.

동연.부: 동연도 없다.

자연.비: 자연대 없다.

경경.부: 경경대 없다.

총: 네. 그러면 온라인 선거 비용으로 정정해서 내일 중으로 이 자료집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의결 안건 나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가지번호 방식 정렬을 위한 총학생회 규칙 일부 개정안인데 저번 주에 보여드린 가지번호 개정안과 동일하다. 이에 대해서 바로 의결을 진행해도 괜찮은지? 네 바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의결명은 다음과 같다. 찬성하시는 대표자분들은 찬성이라고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시면 되겠다. 반대하시는 대표자분들이 안 계신다. 참석단위 11단위 찬성 11단위로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조항 신설인데 지난 1학기 때 자문위원회의 조항을 삭제한 바가 있다. 당시 삭제를 한 이유가 총장이라든지 학교 본부의 의견이 학생자치의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자문위원회의 조항을 폐지했는데 이 자문위원회 폐지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자문위원 구성이라는 조항을 또 신설해 보았다. 안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학생자치 운영의 전문성 강화나 회원 간 이해충돌의 해결 등을 위해 회계나 법률 등의 부문에서 전문가 자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다. 이번 회칙 개정에서는 대학 본부와 협의체 구성이 아니라 총학생회가 직접 전문가를 섭외하고 자

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자 한다.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고 내부 전문가는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수님들이나 기타 다른 학교 본부의 전문가들을 일컫는 말이다. 내부 전문가라는 말을 넣은 이유는 아무래도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게 될 경우 상당수의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내에도 회계 교수님이나 로스쿨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내부적으로도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내부라는 말도 넣었고 이 개정안에 대한 주위 분들의 의견을 구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네 부총학생회장님.

부총: 의견 공유하기 전에 내용과 신규 대조표 표기가 달라서 정정을 하도록 하겠다. 지금 제 6조의 부가 제목이 내용에는 자문으로 돼 있고 신규 대조표에는 자문위원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두 내용 모두 활동 자문으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다.

총: 활동 자문이라는 말씀이신지?

부총: 네.

총: 그냥 자문으로 하는게 어떤지?

부총: 상관 없다. 여튼 그 두 내용을 통일해야 된다는 말이었다.

총: 네 내용에 적혀 있는 제6조 자문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에 대해서 중운위분들의 의견을 구하겠다.

예술.정: 예술대학 그냥 드는 생각인데 학교 물론 저는 별로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만 학교에서의 내부 이해 관계나 충돌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는 게 그냥 맞는 건지 좀 의문이 든다. 혹시 조금 더 이것을 개정안으로 상정하신 동기를 더 설명해 줄 수 있으신지?

총: 예전에도 학생회비 관련해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고 한다. 사실 학생회비 횡령이나 학생회비 사용 등에 대해서 그 범위나 그 유권 해석이 학생의 그런 수준에서 넘어갔을 때에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그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했을 때 그 비용을 학생회비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회칙으로 좀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외부 전문가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거는 중앙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안의 수준이나 양상에 따라서도 중운위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자문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 상정에 대한 의결을 바로 진행을 해도 괜찮은지?

경경.부: 경경대 추가의견 없다.

총: 네 그러면 의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채팅창에 의결명 올려드렸다. 잠시만 다시 올려드리겠다. 네 의결 명은 다음과 같다. 자문에 관한 네 찬성 올려주셨는데 바로 찬성해 주신 자연대 위원장님 또 저한테 dm으로...

반대하시는 대표자분들은 반대라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 기권하시는 대표자분들은 기권을 하고 해 주시기 바란다. 참석 단위 11단위 찬성 7단위 반대의 2단위 기권 2단위로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표기 수정에 관한 개정안이다. 표기 수정은 단순 표기 수정이고 각 과를 각 학과(부)로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행위원회의 중앙집행위원회를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타의 내용을 정정을 한다든지에 대한 단순 표기 수정이다. 바로 의결을 진행해도 괜찮은지? 네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의결명은 채팅창에 올려드렸다. 찬성하시는 대표자분들은 찬성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란다. 네 찬성 11단위로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다.

사과.부: 사회과학대학 저번에 보고 까먹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방금 다시 보고 생각났는데

총: 네

사과.부: 제 41조에 집행국을 각 집행국장으로 표기를 변경하게 되면 주어가 각 집행국장인데 그 안에 또 각 집행국장, 국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말이 이렇게 문장이 이어지게 돼서

총: 네

사과.부: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다.

총: 네 41조 2항 말씀하시는 건지?

사과.부: 네

총: 그러면 각 집행국장은 총학생회장에 임명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며 집행국은 각 집행국장, 국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면 되는지?

사과.부: 네. 뭔가 그렇게라도 앞에 주어가 바뀌게 되면 뒤에 문장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의결은 지났긴 한데 의견 드린다.

총: 그러면 각 집행국장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며 각 집행국은 집행국장, 국원으로 구성한다.

인문.정: 혹시 총학생회장 의견 하나 들려도 되는지?

총: 네 근데 부총님이 먼저 손드셔가지고...

인문.정: 네

부총: 전항에 동일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2항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는 내용까지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

총: 네 인문대 회장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인문.정: 동일한 의견이었다.

총: 그러면 각 집행국장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라고까지만 하도록 하겠다. 다들 동의를 하시는지? 의결을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네 그러면 이견 없으신 걸로 하고 다음 의견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잠시만요. 우선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이라고 표기되어 있던 것을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로 표기를 수정하자라는 내용인데 제가 오늘 회의를 준비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다. 개정을 하는 건 좋은데 첨단신소재공학과처럼 안성학적이거나 좀 학생자치에 관례적으로 이제 서울캠에서 케어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예외적인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냥 표기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다. 네 안성 학적이거나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캠에서 수업을 듣거나 서울 캠퍼스의 학생회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들을 고려해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로 표결을 수정하지 말고 그냥 총학생회로 두자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에 대해서 중운위분들의 의견을 구하겠다.

인문.정: 근데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는 개정안과 크게 상관이 없는데 안성캠에 있는데 그 서울캠에 영향을 받는 학과(부)는 혹시 소속 자체는 안성캠인지?

총: 학적은 안성캠인데 실질적으로 수업을 학교에서 이제 서울에서 듣고 학생회도 이제 통일 공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예외 사항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으니 그냥 총학생회로 두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게 제 의견이었다.

통공.정: 제가 첨단소재공학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학적은 안성이고 그러니까 안성 캠퍼스 내에 공과대학 안성 캠퍼스가 따로 이제 생기는 건데 학과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다 올해 생겨서. 근데 행정 처리는 서울캠에서 하고 수업도 안성캠에서 듣는다.

총: 오

통공.정: 근데 이제 개네만 따로 있으니까 학생회 관리나 이런 거는 지금은 서울 캠에서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총: 그렇군요.

통공.정: 그러니까 수업은 안성캠에서 듣는다.

총: 제 발언을 정정하도록 하겠다. 여튼 서울캠에서 케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 그냥 현행

을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것이 제 의견이었고 이에 대한 이견이나 추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 의견이 없다면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네 의견 없으시면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의결 명은 다음과 같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 찬성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란다. 반대하시는 대표자분들은 반대라고 남겨주시기 바란다. 기권하시는 대표자분들은 기권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란다. 참석 단위 11단위 찬성 8단위 반대 2단위 기권 1단위로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으로 보궐 선거 등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임기 명시를 위한 개정안이다. 지난주에 논의가 되었던 것이고 제64조 2항으로 빼서 조항을 신설해 보았다. 추가 논의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찬성하시는 대표자분들은 찬성이라고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란다. 네 찬성 단위 11단위로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다. 네 마지막으로 안건지에는 기재하지 못했는데 졸업준비위원회의 명칭 변경을 위한 의결 안건이다. 우선 졸업준비위원회의 명칭을 졸취업준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고 그 이유는 범사회적으로 취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졸업준비위원회의 취업 관련 업무를 추가 및 제도화해서 학우분들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한다. 질문 있으신 대표자분들의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다. 네. 의견 없으시므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찬성하시는 대표자분들은 찬성이라고 해주시기 바란다. 반대하시는 대표자분들은 반대라고 해주시기 바란다. 기권하시는 단위는 기권이라고 해주시기 바란다. 네 찬성 7단위 반대 2단위 기권 2단위로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논의 안건 상정에 대한 의결이다. 중앙감사위원회의 지위 및 방향성 논의를 논의 안건에 상정한다는 의결이다. 추가 의견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찬성하시는 대표자분들은 찬성이라고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11단위 찬성으로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심의 안건이다. 총학생회비 결산 및 내역 심의인데 총학생회비 사용 내역은 1학기 전학대회 때 보고드린 그 날짜 이후부터 자료집 작성을 위해서 9월 27일까지 작성을 했다. 사용 내역에 대해서 한번 정독을 해주시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정독시간 3분 갖도록 하겠다.

총: 질문이 있으신 대표자분들이 계신지? 네 없으신 걸로 하고 심의 안건 상정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찬성하시는 대표자분들은 찬성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란다. 네 찬성 11단위로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다.

총: 다음으로 보고 안건 상정이다. 첫 번째로 중앙집행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보고 안건에 상정한다 라는 의결이다. 찬성하시는 대표자분들은 채팅창에 찬성이라고 해주시기 바란다. 네 11단위 찬성으로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다.

총: 다음으로 각 위원회별 업무 보고를 보고 안건에 상정한다는 의결이다. 찬성하시는 대표자분들은 채팅창에 의사 표현 해주시기 바란다. 반대하시는 대표자는 반대라고 해주시기 바란다. 기권하시는 대표자분들은 기권이라고 해주시기 바란다. 한분 투표를 안 해주셨는데 한분 누구신지? 감사하다. 11단위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총: 혹시 확대운영위원회 안건 상정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의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네 없으신걸로 하고 확대운영위원회의 안건 상정은 내일 중으로 2021학년도 2학기 총학생회 및 예산안을 의결 안건에 상정한다는 의결을 진행한 후에 안건 권고하도록 하겠다.

2. 국장위원장 회의록 열람 의결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차 정기 회의록 열람을 결의한다.]

총: 의결 안건 두 번째이다. 국장, 위원장 회의록 열람 의결인데 그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님께서 안건으로 상정을 해 주셨다. 안건 상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사과.정: 지난 이제 회의에서도 한 차례 말씀 드렸던 바와 동일하게 회의록을 요청하는 학우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난주쯤에 총학생회장님께 여쭙보니 국장,위원장단 회의록은 대외비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다. 사과대의 경우에는 총학생회가 학생 자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외비로 총학생회 내부에서 결정을 하시고 회의록을 학우들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현 상

황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이에 이번 주 논의 안건을 상정을 했고 이에 대해서 논의해서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는 의결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상이다.

총: 네 총학생회 집행부 의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다. 국/위원장단 회의의 주 목표는 총학생회가 정책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계획을 수립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데 있다. 의견 교환의 주체인 국/위원장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며, 회의록 고지 및 공개의 의무가 없다. 다만, 현재 오늘 총학생회는 회의에서 공유되는 사업의 진행현황과 계획에 대해 학우분들께 밝히기 위해 '오늘의 회의록'을 통해 이미 매주 공개되고 있으며, 이는 매주 중운위 회의에도 사업보고의 형태로 전달하고 있다. 만약 지금 진행하는 총학생회 사업 보고 이상의 어떠한 논의가 오갔고, 누가 어떠한 발언을 했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우려사항이 있다. 첫째, 국/위원장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 및 교류가 제한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국/위원장단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사결정에 있어 다수 학우들의 선출을 통해 뽑힌 총학생회장단에 보고 및 허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회의록이 문서화되어 학우들에게 공개될 경우,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을 담지 못하고 오해를 일으켜, 국/위원장은 지나친 비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의결권이 없는 당사자에게는 다소 지나친 처사일 수 있다. 둘째, 국/위원장단 회의에서는 학교 본부와와의 논의사항 및 본부에서 학우들에게 공개를 기다려 달라고 요청받은 사안, 외부 제휴업체의 요청 사항 등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이는 사업 집행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참고된다. 만약 이를 회의록 공개로써 외부로 유출되어 지게 된다면 대학본부와의 협의 및 외부업체와의 조율 등에 있어 총학생회 활동은 많은 제약을 받게될 수 있다. 셋째, 회의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문제이다. 국/위원장단 회의는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며, 회의 소요시간은 평균 2~3시간 정도 이다. 많은 사안을 다룰 때에는 4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다분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회의록에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이라는 생각이다. 현재 국/위원장단 회의록은 해당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발생할 시, 이 인원이 회의의 내용을 간략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결정사항 위주로 간단히 적고 있다. 이는 1시간 동안 진행된 중운위 회의 이후 회의록 작성에 3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위원장단 회의의 매주 회의록 기록에는 약 9시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국/위원회 별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정책에 대해 사업보고 형태로 정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지난 2분기 간담회에서 학우 발언 내용 중 학생총회 진행방식과 같이 중요한 사안을 국/위원장단 회의에서 결정한다면 회의록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받은 바 있다. 학생총회 진행방식 등과 같이 중요한 결정에 대해 사전에 중운위분들께 공유되어야 했지만, 당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으며 사과드린다. 총학생회 역시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총학생회의 논의사항을 중운위에 공유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국/위원장단 회의에서 모아진 국/위원장단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번 확대운영위원회 관련 실무적인 사항 역시 총학생회에서 논의되는대로 총학생회장단을 통해 중운위에 공유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앞으로도 학생총회, 전학대회 등을 포함하여 국/위원장단 회의, 총회의 등을 구분하지 않고, 총학생회 내부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결정한 사항들에 대해 중운위에 공유하도록 하겠다. 이상 총학생회 입장이었다. 회의록 열람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 따라서 총학생회 집행부는 국/위원장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라는 입장을 전달해 드리겠다. 혹시 사과대 회장님 답변이 되셨는지?

사과.정: 이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저희가 해당 사유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게 중운위 직후였다. 화요일에 요청을 드리면서 화요일, 수요일 중으로 답변을 받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회의에서 답변을 받게 돼서 해당 사유에 대해서 사과대 학생회장단이나 사과대 단운위의 논의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우선 저희 부회장님과 이야기를 좀 해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총: 다른 중운위 대표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예술.정: 예술대학은 총학생회장님이 말씀하신 의견이랑 동일하긴 한데 만약에 방금처럼 사과대 학생회장님께서 답변을 방금 들어서서 다른 단위도 뭔가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다 하면 의결을 미룰 수 있으면 미루는 것도 방법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사과.정: 사과대 추가적으로 약간의 논의를 진행해서 의견을 드리면 저희가 해당 요청을 드릴 때 그러니까

누가 국장/위원장단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평학우들에게 모두 공개를 해라 라는 요지로 요청을 드린 게 아니고 어떤 논의가 국장/위원장단 회의에서 오고 갔고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과정을 원한 것이고 그렇기때문에 굳이 회의록에서 실명제를 택할 이유나 중운위 회의록처럼 속기록 제도를 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논의 과정에 간단한 요약과 어떤 사안이 결정이 되었는지만 전달이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국장/위원장단의 경우에도 총학생회장이 임명을 하셔서 중운위가 인준을 받은 직책이기 때문에 국장/위원장단 회의에서 결정되는 내용이 있다면 최소한 학우들이 어떤 특정 회차나 특정 사항에 대한 정보 자료를 요구하였을 때 그 회의록을 학우들에게 보여줄 수는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그러니까 중대 중심에 지금 중운위 회의록이 모두 업로드 되는것처럼 전체가 공유될 필요는 없겠으나 학우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됐는지 여쭙었을 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를 총학생회 내부에서 대외비로 규정하시는 건 이치에 맞지 않은 처사가 아닐까 라는 의견 드리고 싶다.

총: 이미 국,위원장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중운위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고 오늘의 회의록이라는 게시물을 통해서도 공유가 되고 있다. 중운위에 제가 사업 보고를 드릴 때 항상 매번 질의를 받고 있고 이 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학우분들께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사과.정: 네 저도 오늘의 회의록이라든지 사업 보고 안건을 중운위에서 브리핑해 주시으로써 이제 국장, 위원장단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결정이 되고 진행이 되는지는 알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어떤 학우들의 알 권리나 중운위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선례로 이번 학생총회 진행 방식 등의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만약에 사업 보고의 경우에는 어쨌든 국장, 위원장단이나 총학생회에서 한번 정제되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나치게 파악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총회 때의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과 같은 보고 방식만으로는 조금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총: 네 학생 총회를 예시를 들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총회 진행 방식 등과 같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중운위분들께 공유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그를 개선 보완하고자 현재 확대운영위원회 관련한 국,위원장단 의견이나 총학생회 집행부 의견은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국위원장단 회의록 작성과 공개는 너무 지나치다. 라는 것이 저희 총학생회 집행부의 중론이고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또한 분기별 간담회나 cs 등을 통해서 의사결정 과정이나 어떠한 사업과 정책에 대한 질문은 상시로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너무 지나친 처사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드리겠다.

사과.정: 학생총회 진행 방식과 같은 중요 상황을 국장,위원장단 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중운위에 공유가 되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주신 거는 이해가 되고 그러나 다만 지금과 같은 국장,위원장단 회의록이 폐쇄적인 방식을 계속 취한다면 언제든지 재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어떤 방식이 잘못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그 방식을 바꾸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나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사실 여기 계신 다른 대표자분들께서도 단위 체계 내부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으셨을 것 같고 사과대 내에서도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해서 우선 국장, 위원장단 회의록에 대해서 주신 의견을 저희 단운위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고 사과대 의견은 이 정도라는 것만 말씀드릴 총: 네 그러면 차기 중운위 회의로 안건을 이관하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중운위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차기 중운위 회의에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5 기타안건

질의응답 및 추가안건 상정

총: 네 기타안건입니다. 질의 응답과 추가 안건 상정을 받도록 하겠다.

사과.정: 기타 안건에서 저희 단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 단위 학우분께서 총학생회 플러스 친구로 일주

일 내내 어떤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정책 차원이 정책 사안에 대한 사후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답장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중운위 기타 안건에서 말을 좀 전해달라는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네 그부분 cs확인을 하도록 하겠다.

통공.정: 기타안건은 아니고 제가 예전에 중운위에서 1학기하고 이제 2학기 복학을 다른 연도에 하면 학점 이월이 안 되는 거 알아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혹시 어떻게 됐는지?

총: 다시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지? 휴학생 이월, 학점 이월 말씀하시는건지?

통공.정: 네

총: 죄송하다. 학사정기협의체에서 말을 못 드렸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저한테도 간혹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화요일에 교무위원회에서 8주 차 이후의 학사 운영 방식이 결정된다고 한다. 아마 현행 유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네 그렇다. 전달 받는 대로 중운위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 사실 저를 통해서 전달을 받는 것보다 각 단과대 학장님들께 전달받는 게 더 빠를 수가 있다. 그 경로로도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다. 추가 의견 내용 없으면 중앙운영위원회의 41차 회의 회의하도록 하겠다. 확대운영위원회에서 뵈도록 하겠다.

<폐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